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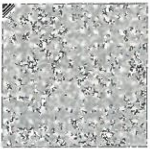
시음 주보

제2391호

2022년 4월 24일(다해)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1베드 2,2 참조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5,12-16

화답송 | 시편 118(117),2-4,22-24,25-27ㄱ(◎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
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
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2독서 | 묵시 1,9-11ㄴ,12-13,17-19

복음환호송 | 요한 20,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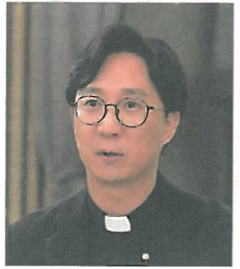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 요한 20,19-31

영성체송 | 요한 20,27 참조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
렐루야.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보도주간

상처는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함께했던 동지 가운데서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스승님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렇게 손쓸 겨를도 없이 일이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순식간에 체포되었고, 재판과 형 집행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잘 안다는 이유로 거들먹거리고 성전의 이권을 챙기며 평평거리고 사는데, 스승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갑자기 겁을 먹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로 우리까지 잡혀가는 것은 아닌지... 언제 소환장이 날아오고, 조사를 받고, 고문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가 놓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스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분명 지난 삼 년간 따라다니며 함께 지냈던 그 스승님이 분명합니다.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도 보여주십니다. 어안이 병병했지만 너무나 반가웠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마침 그날, 우리 동지 중 하나인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못 자국이 선명한 스승님이었다고 전해주었지만, 토마스는 우리가 주님을 뵈었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못 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 합니다. 하긴, 다시 살아오신 스승님을 직접 보고도 이게 꿈인

가 생시인가 싶은데,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스의 반응도 이해는 갑니다. 그 일이 있고 여드레 뒤, 우리는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 집안 문을 모두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스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분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정한 눈빛으로 토마스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어리둥절해 하는 토마스에게 당신의 못 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상처도 만지게 해주십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토마스도 눈물을 흘리며 스승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스승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만 빼고, 저 문밖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율법 학자들과 사제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당신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상처를 보고 만져보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상처는 십자가의 결과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갔던 저 문을 열고 열러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을 것을 빨리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스승님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러 달려가야겠습니다. 그 상처가 끝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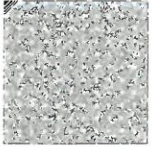
아미미슬관, 당진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소녀는 손에 있던 나비를 날려 보냅니다. 소중한 것은 곁에 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존재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며, 깊은 숨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험한 세상, 어디에 홀로 서 있어도 두렵지 않을 당신의 숨을 그렇게 우리에게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조용민 요셉 | 구글 코리아

예수님께 가까이

한 기업의 기업 가치는 현재 발생하는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해 몇 배수로 기대감을 반영한 시가총액의 개념으로 정해지곤 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여러 기업들이 적게는 2~3배 많게는 20~30배씩의 기대감을 부여받고, 이에 시장이 부응해서 주가가 유지됩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일하고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러 기업들이 부침이 있던 동안에도 꾸준히 시장의 기대감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해온 기업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내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로 "Put Users First(사용자 중심)"라는 철학입니다. 이는 구글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견 충돌과 의사결정 과정의 토의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사용자여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뒤로 하거나 버리고, 사용자 즉 상대방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이어나가야 건강한 플랫폼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역시 "Customer Obsession(고객 집착)"이라는 표현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우리의 이익이 아닌 고객이 가져갈 혜택과 이익에 집착해야 한다."라고 천명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면서 더 큰 영향력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모든 의사결정과 중요한 논의에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상대방 즉 사용자를 위한 마음가짐이 결국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몸소 깨닫곤 합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을 지급합니다. 유튜브가 그랬던 것처럼, 안드로이드도, 지메일도 그토록 많은 사용자를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의 핵심은 바로 사용자 중심의 사고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경영에서 사람

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오후 한나절만 보낼 수 있다면 나는 애플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업 경영에서 인문학을 통해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느님이 매 순간 일깨워주시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힘' 역시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 삶의 방향을 하느님과 가까이하려는 마음가짐은 무엇을 바라고 가져야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만나뵙고 나면 영적으로 맑아지는 느낌이 들게 해주신 존경하는 김순기 서강대 대외부총장님께서 코로나 사태 전까지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페인을 성지순례하고 다녀오신 후에 해주신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이야 의미도 있고 가치가 있다."

한껏 묵상

이웃
**도경환이
 너희와함께!**
 요한 10.26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믿음 사랑
희망
부활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14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그리스도교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 계시, 신학 등이 많은데, 그중 ‘부활’은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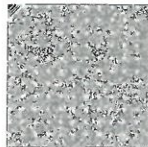
부활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해, 사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루카 23장), 티베리아스 호숫가(요한 21장) 등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 가던 중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깊게 체험했던 사도 바오로(사도 9장) 역시 중요한 증인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당연히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 부활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부활하셨다면 무덤은 비었어야만 합니다. 그저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는 아니지만, 무덤이 비었어야 부활을 상상할 수 있기에 부활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과 관련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당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후 그분이 부활하셨을 거라 기대나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요한 20,1)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 후 다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계속 무덤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던 마리아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녀는 예수님이신 줄 몰랐지요. 아마도 부활하신 육신은 다른 얼굴과 몸, 다른 음성이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못 알아보다가 어느 순간, 즉 예수님께서 평소 그녀를 부르셨던 것처럼 “마리아야!”하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심을 알아봅니다.

마리아는 왜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고, 왜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왜 ‘마리아야!’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기에,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에, 그분의 외모와 음성은 달라졌지만 평소 그녀를 부르시던 모습을 기억하였고, 부활하신 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하느님 사랑의 힘이고, 사랑은 부활을 알아보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여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 희망, 사랑은 항상 함께하는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는 이유는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장 깊은 신비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믿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골로 3,14)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교구 의견 종합 단계

양주열 베드로 신부 |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시노드 교구 실무자

이제 우리 교구는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교구 단계에서 실시하는 두 번째 단계인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a pre-synodal meeting, 교구 문서 종합)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시노드 자문 모임'(소그룹 모임) 단계를 마치면서, 참여한 소그룹 모임을 통했던 개별적으로 했던 시노드 교회를 위해 제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대교구는 본당과 공동체 차원에서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고 진행하였는데, 연인원 약 2만 8천 명이 시노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3월 말까지 약 5천 회의 소그룹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세부 안전으로 약 2만 6천 건 이상의 시노드 제안을 접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교구 내 남녀 수도회에서 시노드 교회를 위한 제안을 제출해 주셨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이들도 시노드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시노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은 시노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제안된 시노드 의견을 해석·분류·식별하여 교구 차원에서 '시노드 교구 종합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하느님 백성으로부터 제안된 시노드 의견을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로 구성된 문서종합팀이 함께 나누어 경청하고 분류하며 식별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노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 경청입니다. 소그룹 모임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상호 경청은 주

교단, 소그룹 모임을 주관하였던 본당(공동체)의 목자인 본당 신부님,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직접 운영한 봉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종합팀에 선발된 이들이 또 다른 경청자가 되어 소그룹 모임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분류하고 식별하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구에 제안된 내용 중 가장 주된 의견이 무엇인지, 특별한 제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치유와 회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영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떤 단계와 절차로 이끄시시기를 살핍니다.

하느님 백성의 제안을 통해 교구 시노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과 함께 교회의 삶과 직무를 실천하려는 방편이고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또한 생활과 직무를 수행하는 영적 방편인 시노드 달리타스를 깨우치는 시노드 교회의 영적 훈련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직무를 통해 활동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기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본당과 공동체 차원의 시노드 소그룹 모임 단계를 마쳤지만, 하느님 백성의 시노드 여정은 문서종합팀의 경청과 식별 그리고 기도 안에서 계속됩니다. 시노드 문서종합팀이 성령의 의도를 깊이 깨우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아킨 로드리고(1901~1999, 스페인)


시각 너머의 세계를 그린 작곡가, 로드리고 '어느 귀인(貴人)을 위한 환상곡'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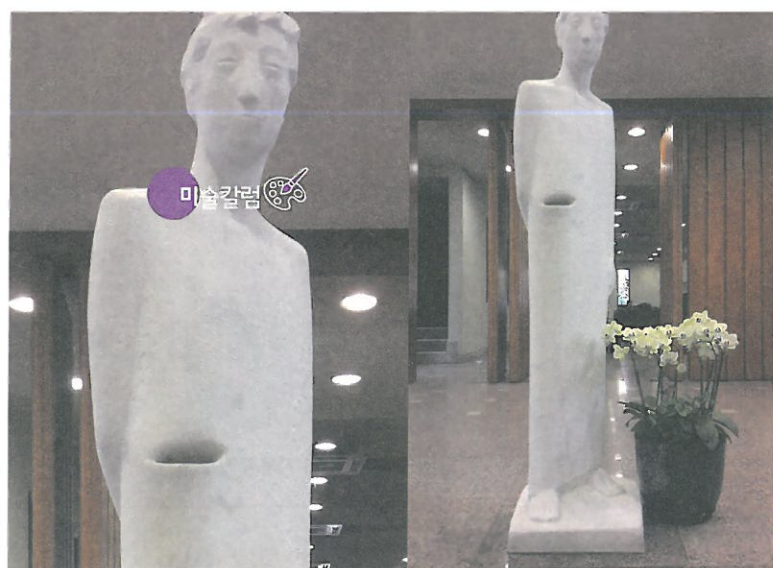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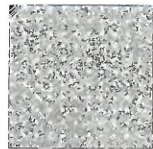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선곡을 할 때는 먼저 방송 시간대, 계절, 날씨, 신청곡,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합니다. 그리곤 '○○날'에는 그날의 뜻에 맞는 음악을 고르죠.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라면, 어린이들이 들으면 좋아할 음악, 어린이와 연관된 음악을 선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빠지지 않고 선곡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20세기 스페인의 대표적인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 1901~1999, 스페인)입니다. 그는 세 살 때 디프테리아를 심하게 앓아 시력을 잃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는, 음악을 천직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죠. 여덟 살부터 피아노, 바이올린을 배웠고, 스물두 살에 첫 작품으로 피아노곡을 썼습니다. 이후 피아노곡, 바이올린곡, 첼로곡, 성악곡들을 썼지만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기타곡들입니다. 혹 그의 이름은 몰라도 그의 대표작인 '아랑후에스 협주곡'이라는 곡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타와 오케스트라가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이 멋진 곡은 경음악으로도 많이 편곡되어서 아주 친숙한 음악이 됐죠. 또, 유명 기타리스트 세고비아(Andrés Segovia, 1893~1987, 스페인)의 요청으로 작곡된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기타리스트 집안인 로메로가(家)(Romeros)가 위촉한 4대의 기타를 위한 작품 '안달루시아 협주곡'도 모두 기타 협주곡입니다.

로드리고에게 음악적 영감을 준 것은 옛 스페인 작곡가의 작품에서부터 동시대 시인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페인의 정신과 문화였습니다. 대체로 멜로디가 뚜렷한 그의 음악은 밝고 낙관적인 스페인의 정서

를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어 20세기 유럽의 다른 작곡가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데, 이런 독창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입니다. 네 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17세기 기타 명인이자 작곡가인 가스파르 산스(G. Sanz, 1640경~1710경, 스페인)가 출판한 <스페인 기타 교본>에 수록된 6개의 춤곡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했고, 각 악장마다 산스의 원곡에서 그대로 옮겨온 제목을 붙였습니다. 1악장 '비아노와 리체르카레(Villano y Ricercare)'는 전원을 뜻하는 춤곡에서 유래한 것으로, 평화롭고 우아하며, 2악장 '에스파놀레타와 나폴리 기병대의 팡파르(Espanoleta y Fanfare de la Caballería de Nápoles)'는 서정적인 스페인의 옛 춤곡 에스파놀레타의 애수 어린 연주가 우리 마음을 끕니다. 힘차고 경쾌한 3악장 '아차의 춤(Danza de las hachas)'은 흔히 '도끼의 춤'이라고 번역되지만, 스페인어 사전에 'hacha'가 '옛 스페인의 춤'이라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아 '도끼'보다는 '아차'라고 하는 스페인의 옛 춤곡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마지막 4악장 '카나리오(Canario)'는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 자치주 카나리아 제도에서 온 춤곡의 멜로디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곡 제목의 '귀인(貴人, gentilhomme)'은 곡 의뢰자인 '세고비아'이거나 곡의 원형 작곡가인 '산스'라는 해석이 있지만, 저는 장애로 인한 불편과 편견에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와 남다른 노력으로 20세기 거장의 반열에 든 '로드리고'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타: 나르시소 에페스
지휘: 가르시아 나바로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



예수상 성수대(장동호, 방화3동성당)

단순하면서도 우아하게 만든 성상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 |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성당에서는 회화와 유리화, 조각과 부조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이 예술 작품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는 공간이라면 성당은 교회 예술품을 통하여 신앙의 세계로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성당에는 교회 조각품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당에는 성모(자)상이나 주보 성인상이 있고, 내부에는 십자가상과 십자가의 길 14처 등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장동호(프란치스코, 1961-2007) 조각가도 그 중의 한 명입니다. 그는 주로 예수상과 성모(자)상, 십자가의 길 14처 등 그리스도교 미술과 관련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성상 안에는 성경의 인물과 더불어 친근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성모자상의 마리아 안에는 어머니 모습이 새겨있고, 소년 예수 안에는 주변의 아이들 얼굴이 있습니다. 그는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세계를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하면서도 우아하게 만든 성상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 사형 선고 받으심(장동호, 명동대성당)

명동대성당 사제관 앞 정원에는 <예수 사형 선고 받으심>(1994년)이 있습니다. 예수님 두상은 조각가가 명동대성당 건립 100주년 기념(1998년)으로 성당 뒷마당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한 후 기증했습니다. 이 대리석상은 가시관을 쓴 채 고통받는 예수님 모습이지만, 동시에 그분이 죽기까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방화3동성당의 출입문 앞에는 대리석으로 제작된 전신상 크기의 <예수님 성수대>(2007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당당한 승리자로서 계십니다. 그분의 옆구리에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상처가 있는데 그곳에 성수를 넣도록 제작했습니다. 교우들은 성수를 찍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장동호의 작품에서도 이 주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모든 힘을 다해 성상을 빚다가 세례명인 프란치스코(1182-1226) 성인처럼 애석하게도 젊은 나이에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을 그의 작품은 우리나라 여러 교구의 성당이나 경당에서 여전히 빛을 밝힙니다.

서울대교구에는 명동대성당(1994년), 공덕동성당(1999년), 도봉산성당(2001년), 한남동성당(2003년), 방학동성당(2003년), 포이동성당(2003년), 전농동성당(2004년), 잠실7동성당(2004년), 방화3동성당(2007년), 신천동성당(2011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 · 청소년 편

#서울대교구_청소년국_주일학교 #Catholic_Kids_Media #신소재_말씀짚친



김광두 고스마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찬미예수님. 유튜브 세계를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이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범유행이 길어지면서 본당 사목의 여러 분야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이 · 청소년 사목이 유독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본당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해 어린이 미사나 청소년 미사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래도 주일학교를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의지와 역량이 되는 신부님, 교사들이 있는 본당은 나름대로 영상 등의 미디어를 이용해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다가갔지요.

하지만 본당 차원에서 영상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구 청소년국의 초등부, 중고등부, 장애인 신앙교육부가 힘을 합쳐 주일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주일학교』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채널은 『Catholic Kids Media(가톨릭 키즈 미디어)』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애니메이션과 함께 그 주일 말씀 전례를 영어, 불어, 스페인어, 몰타어, 중국어로 제공하는 채널인데, 영어 영상에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코로나로 본당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상을 찾아보던 의정부교구 강명호 마르코 신부님이 이 채널을



발견하고 제작자와 연락해서 매주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다음 주일 영상이 나오니까 미리 들어본다면 말씀도 익히고 영어 공부도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 채널들 가운데에서 혹시 이런 콘텐츠가 있을까 찾아보니, 여러 신부님이 함께 신앙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채널인 『신소재: 가톨릭 놀이터』에 『말씀짚친』이라는 코너가 있더군요. 주일 말씀 전례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니고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한 강론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들려줍니다. 『말씀짚친』은 매주 금요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부들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신앙 콘텐츠’ 『신소재: 가톨릭 놀이터』에는 젊은 신부님들의 참신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다른 영상들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 청소년 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주일학교 채널



Catholic Kids Media 채널 3



신소재: 가톨릭 놀이터 채널



신소재 말씀짚친(주일강론) 플레이리스트



오늘(4월 24일)은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선종 1주기

- 공식 추모 기간: 4월 21일(목)~27일(수)
- 추모 미사(가톨릭평화방송의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

- ① 4월 27일(수)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교구장과 사제단 공동 집전)
- ② 4월 30일(토) 오전 10시 30분, 용인 성직자묘역 (총대리 주교와 제16 구로지구 사제단 공동 집전)

• 추모 행사

- ① 사진전 '별빛 같은 사람 - 정진석 추기경'
: 4월 21일(목)~5월 1일(주일), 명동대성당 지하 1898광장
- ② 정진석 추기경 선종 1주기 추모 특별전
: 4월 27일(수),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사관 2층 전시실

서울대교구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

양경모(멕시코), 김경진(대만) 신부님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해외 선교 사제로 파견됩니다. 이에 정순택 대주교님의 집전으로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를 봉헌하오니 함께 하셔서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 곳: 5월 4일(수) 오후 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 문의: 02)727-2424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6년 4월 29일 봉희만 안토니오 신부(70세)
- 1993년 4월 27일 김정수 레오 신부(60세)
- 2017년 4월 27일 홍문택 베르나르도 신부(64세)
- 2021년 4월 27일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90세)

교구장알림 ~

가톨릭 중등교육자의 날

취지: 가톨릭 신앙을 가진 교직원들이 미사·나눔을 통해 위로받고 신앙을 다지는 시간을 통해 위로받고 신앙을 다지는 시간
대상: 가톨릭 중등교육자(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교직원이면 누구나) / 특강: 양승국 신부(살레시오회)
때: 4월30일(토)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방식: 비대면(ZOOM 화상회의)
문의(신청): 02)566-5456 학교사목부
중등교육자회에 관심 있는 분들도 연락주세요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 신자 교리

대상: 본당에서 부득이하게 정규 예비 신자 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성인, 본 교육은 서울대교구 본당에 한함, 본당 신부님 승인 필수
강의: 6개월(온라인 교리) / 회비: 1만5천원
신청: 매달 1일 개강, 매달 20일 신청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신청 /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자세한 사항은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 신자 교리' 참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5월2일(월)~27일(금)까지 / 3개월 수업(6월~8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여름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블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김선이 개인전: 1전시실
7th the CROSS '아름다운 동행'전: 2전시실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전시회: 3전시실
전시일정: 4월27일(수)~5월2일(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15차 미사 4월2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운향시 본당, 비현 본당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 문의: 02)727-2420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5월3일부터 매주(화)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 / 문의: 010-4565-8898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5월12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 봉사국) /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문의: 02)727-2407, 2409

2022 시민사목위원회와 공단기가 함께하는 '함께 꾸는 꿈(CUM) 희망 프로젝트' 교육생 모집

대상: 서울 거주 19~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한부모·조손가족 보호대상, 자립준비청년 등 / 교육과정: '공단기' 공무원 전직렬 온라인 강의 지원
신청기간: 4월18일~5월31일 / 문의: 02)777-7261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화상수업'

주제: 나는 내인생을 너는 네인생을 살아라
때: 5월12일~8월11일 매주(목) 오후 8시~9시
교육 지도: 문중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4월28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빈민사목위원회 / 문의: 02)727-2427

2022년 가톨릭스카우트 체험캠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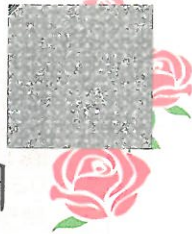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가톨릭스카우트에서 청소년을 위한 스카우트 체험캠핑을 개설합니다
때: 6월4일(토)~5일(일) / 1박2일 캠핑
곳: 경기도 양주시 삼승리야영장
대상: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신청방법: https://seoulkscouts.modoo.at 참조
문의(신청): 02)762-9857 / (화~토) 8시~17시
신청기간: 4월12일(화)~5월11일(수)까지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신청 안내

날짜	코스	비고
5월3일(화)	2코스 생명의 길	3코스 일부(영고계 순교성자)제 순례
5월14일(토)	3코스 일치의 길	대중교통 이용
5월17일(화)	3코스 일치의 길	대중교통 이용
5월25일(수)	저녁(순례길(명동성당-김범우의 집 타-한국 천주교 회창립 타-좌포도청 타-종로성당-창경궁 야간투어)	

신청: 4월25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 문의: 02)269-0413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 방역지침 준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5월1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ulmban.or.kr)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5월14일(토) 14시	본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성체 선교 클라라 수녀회	4월30일(토) 10시~14시	대전 서구 갈마로 187-1	010-8683-6848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4월30일(토)~5월1일(일)	수도원	010-6312-1986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수도회	5월7일(토)~8일(일)	강화도 피정의 집	010-3241-3107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4월29일(금)~5월1일(일)	본원(원주)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한국의방선교회	5월1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기쁨과 자비의 어머니이시여

저희를 위한 구원의 은총을 당신 아드님께 청해 주소서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이

손희송 주교가 말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

손희송 주교 지음 | 14,000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러한 위기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신앙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희송 주교가 말하는 곤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귀 기울여 보세요!



성경 속 상징

비유와 상징이 가득한 책, 성경
성경에 관한 친절한 안내서

허명엽 지음 | 18,000원

성경은 비유나 상징을 통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속 상징》은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들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 성경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마리아의 비밀(개정)

성모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꼭 읽어 봐야 할 필독서!

산티아고 마르틴 지음 | 18,000원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성모님이 당신 삶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회고록이 발견된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까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 예수라는 아들을 둔 한 여인 마리아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 보세요.



그리스도의 탄생(개정)

엔도 슈사쿠의 시선으로 그려낸
그리스도의 탄생

엔도 슈사쿠 지음 | 17,000원



《예수의 생애》에서 무력하고 슬픈 예수의 삶을 다루었던 엔도 슈사쿠가 이번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매개로 자신만의 '모성의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외면하던 제자들의 수난과 갈등과 깨달음까지,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그리스도 탄생의 여정을 만나 보세요!



파티마(개정)

성모 발현의 목격자,
루치아 수녀의 회고록

루치아 도스 산토스 지음 | 16,000원

제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봄, 포르투갈의 작은 언덕에서 양 떼를 돌보던 세 목동 아이들은 태양처럼 밝은 빛을 발하는 성모님을 보게 됩니다. 매일 13일, 여섯 차례에 걸쳐 세 아이들에게 찾아오신 성모님의 은총을 지금 만나 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대하는 이달의 묵상: 가족, 성모 마리아

'성모 성월'과 '가정의 달'을
교황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각 권 8,800원

12가지 주제들을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 1년 동안 한 달에 하나씩 묵상하도록 해주는 묵상집 시리즈입니다. 다가오는 5월을 맞아 《가족》과 《마리아》를 읽으며 가정 안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손길과 성모님에게서 찾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묵상해 보세요!



제2226(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전신자 봄맞이 대청소 및 국수잔치

일시 : 5월 1일(주일) 교중 미사 후
개인 준비물 : 걸레, 고무장갑

◎ 성모의 밤

일시 : 5월 14일(토) 오후 8시 / 대성전
준비물 : 묵주

초(성당마당에서 판매)

※ 꽃을 봉헌하실 개인 또는 단체는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레지오 전단원 교육

일시 : 4월 24일(주일) 오후 1시 / 대성전

◎ 여성을뜨레야

일시 : 4월 26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성모 신심 미사 : 5월 7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5월 8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사무실 휴무 안내
5월 5일(목)

※ 미사 지향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 주일학교·청년기금 마련 부활달갈·초 판매정산

	자 모 회	청년연합회
매출액	4,305,000	930,000
재료비	1,869,161	363,900
순이익	2,435,839	566,100

* 도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청년레지오(셋별 Pr.) 단원 모집

대상 :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청년
회합(기도) :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문의 : 단장 (010-9524-8988)

※ 코로나19로 당분간 회합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4. 1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81	731 (35.1%)	674 (32.4%)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30,288,100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 조영월 안나 상가 이십만원

◎ 감사헌금 (4월 11일~17일)

권미용 오만원 정은영 일십만원
정수진 칠만원 우성택 오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노연숙 오만원
정재현 오만원 최종태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주님 부활 대축일)

교무금 8,284,000원
성목요일헌금(가난한이들을위한 헌금) ... 1,857,000원
성금요일헌금(예루살렘성지 특별헌금) ... 1,631,000원
파스카 성야 헌금 3,372,300원
주일헌금 5,052,2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1,991,000원

입당	134	봉헌	217, 220	성체	165, 179	파견	129
----	-----	----	----------	----	----------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 하 여 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 하시 다